

4학년 3반의
아름다운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3반

차례

4학년 3반의 아름다운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3반

바리공주 • 황지울

무제 • 안형준

해 • 박현서

바다 • 방서은

눈 위의 발자국 • 최가람

해바라기 앞에서 • 이서연

초승달 • 배승후

기러기 • 김도현

걱정 • 압둘

달 • 강찬혁

우리 강아지 • 김효은

하얀 밤 • 이은서

산골길 • 박정민

매미 • 유지원

혀랑 사탕이랑 • 서하진

채송화 • 김윤진

가을 • 김준수

레고 • 고현희

비 올랑갑다 • 성시연

달 • 유수연

아침에 • 유상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 임서진

이슬 · 김소율

메뚜기 · 고시우

국군의 날 · 김이준

찜질방 · 권서아

또 다른 고향 · 민준기

〈무제〉

네 발 달린 산나 무 밤상
 에 먼 거 그리 한 그릇 하
 빛과 구름 그리자까지
 기게 감도는구나.
 기창 제 밤 면 목 겁 다고
 속에 비친 청색을 나는 사랑
 안다오.

안형준
 2000년 10월

안형준





아이가 방안에 누웠다.
 어? 이게 뭐지?
 동전 한 개가 햇살이 방안에 떨어져
있네요.
 손을 내밀어 가만히 잡어 봅니다.
 어? 잡히지 않네요.
또 잡어 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손을 들이 밀어
봅니다.
손등이 따뜻 하네요.
손을 뒤 잡어 봅니다.
손바닥 안에 햇살이 있습니다.
꼭 쥐어 봅니다.
즉석 위로 햇살이 도망 갔
습니다. 얼마! 얼마!

바다

박병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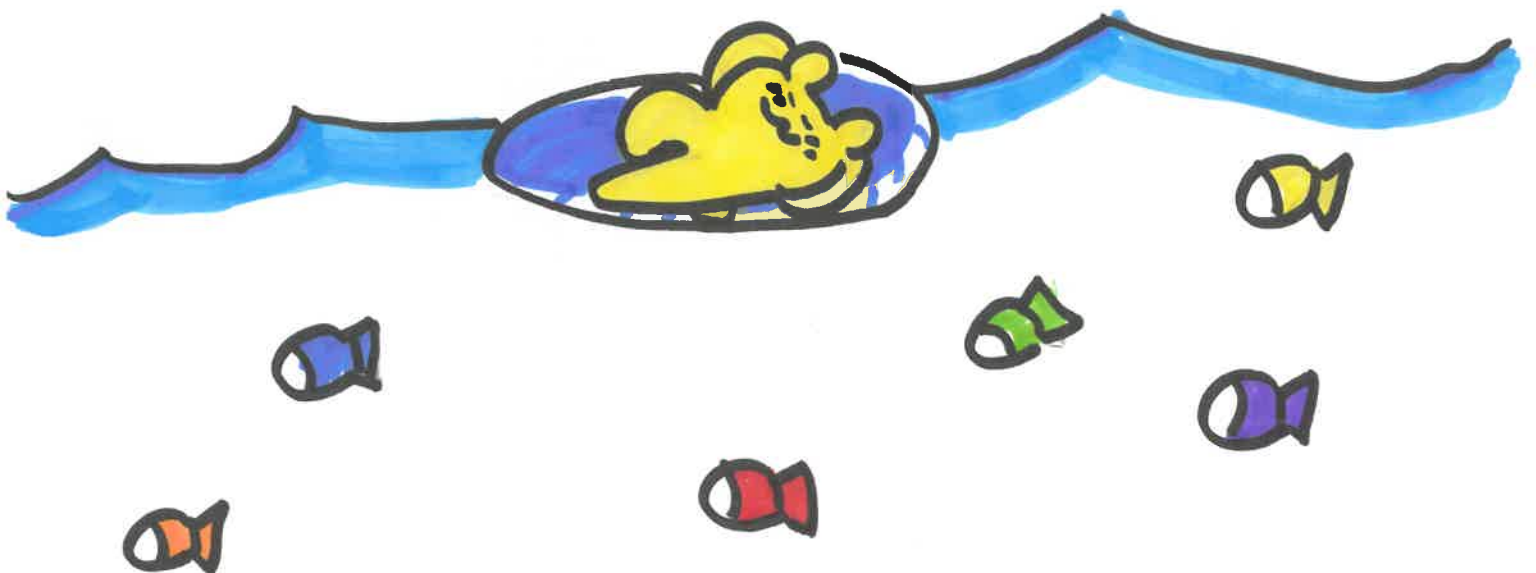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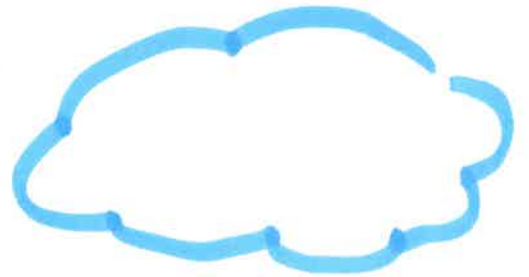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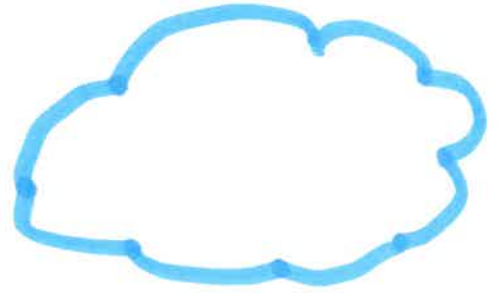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내려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건

물고기들이 먹어서겠지



눈 위의 빨자국

토끼가 밟고 가면

토끼 빨자국

멧돼지가 밟고 가면

멧돼지 빨자국

토끼는 가벼워서

빨자국도 얇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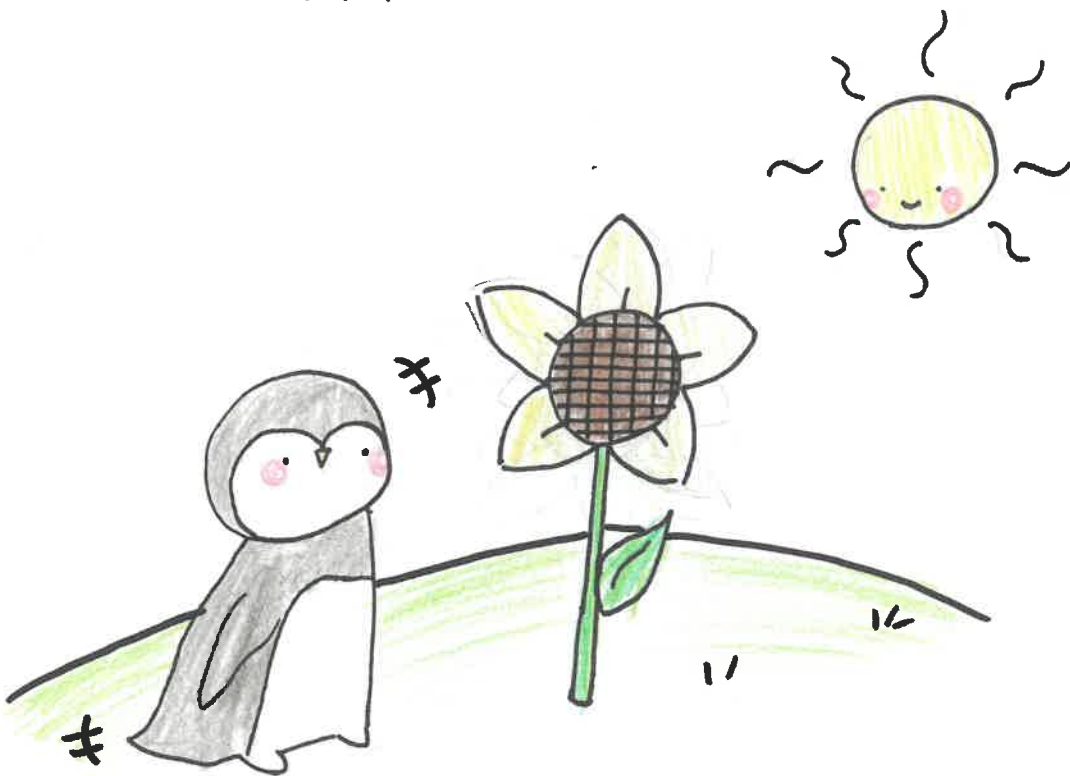
멧돼지는 무거워서

빨자국도 깊고



해바라기 앞에서

키가 펭귄만 한
해바라기 앞에서
펭귄이 킁킁킁 웃네요 ㅎ
뭐가 서로 그리 우스운지
마주보고 웃네요:)



초영단



초승달을 따라가 심연까지 만들어
 푸른 그늘에 닿아 놀아요
 우리 아기들 거기 태우면
 호수에서 동심 잠이 들겠지

초승달을 따라가 조각바람 만들어
 푸른 나무 밑에 띄워놀아요
 우리 아기들 거기 태우면
 호수에서 동심 잠이 들겠지



기러기

기러기 떼 열지어
찬 하늘 날아간다

새라곤 쓰러다가
스자만 쓴 것 같다

어린 기러기도
열심히 따라간다

함께 가야 멀리까지
간다는 거 어려도 안다.



걱정

내 강아지야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엄마 말도 잘 듣지?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가 물어봐요

시골 할머니네 강아지야

밥 잘 안 먹고

똥 잘 못 싸고

할머니 말도 잘 안

듣나 봐요

걱정이에요



달



강찬혁

고름달,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밤에만 뜨는 달
밤에 눈부시게 뜨는
여러 달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땅속에서 톱지 않을까?
함박눈아
다독다독 덮어줄래?

윽윽 바람부는데
우리 강아지 외롭지 않을까?
겨울 나무야
네가 친구해줄래?



하얀 밤

하얀 밤 겨울 밤 눈 내리는 밤
나무에도 장독에도 눈이 쌓여서
하얀 나무 하얀 장독기가 자랐네

하얀 밤 죽은 밤 얼음 머는 밤
얼어붙은 물레방아 허연 고드름
흰수염 난 할아버지 닮아 버렸네



산고길
나글글

시: 박정민

치렁
넙글글

검도없다

우쭈우쭈기어와

길을 개로 지를 참이다

고성이 짙고

산밭에 가던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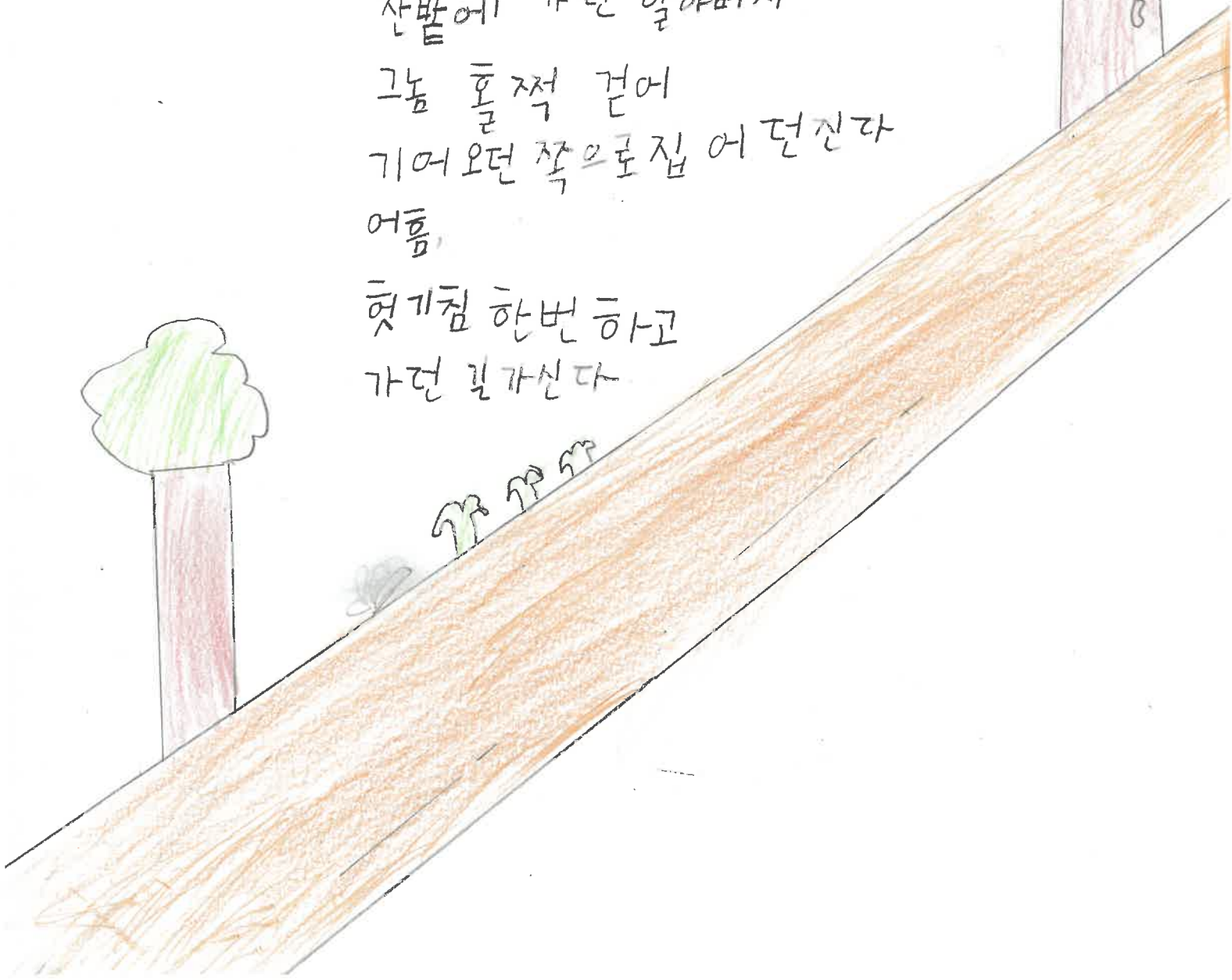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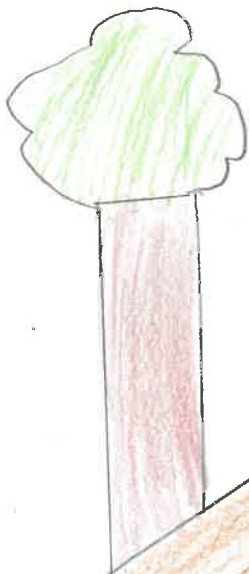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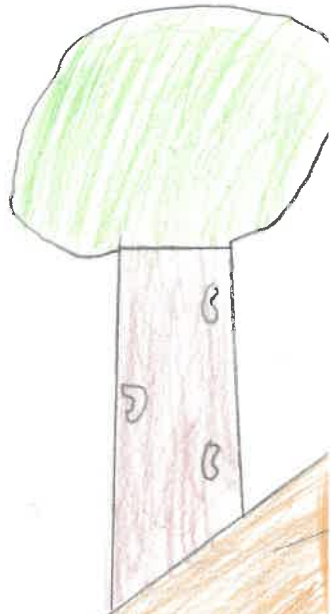
그놈 훌쩍 건너

기어오던 쪽으로 집어 던진다

어흠

헛기침 한번 하고

가던 길가신다



매미

오동나무는 매미가 날아갈까 봐

제 앞으로 커튼을 치고

살구나무는 매미가 날아갈까 봐

가지마다 노오란 살구를 달았지

오동나무는 공부방, 살구는 장남 감

그것이 즐거워 매미는

온종일 멍멍 노래 부르지



<혜랑 사탕이랑>

예나예나 혜랑 사탕이랑 살았대
~ ~ ~

혜는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쓰다듬어 주고 안아 주었대

사탕도 혜가 요처럼 푹신하니까

침을 이빨처럼 두집어쓰고

신나게 뒤그면서 놀았대

그런데 혜가 싹 집히는

이빨도 아래위로 여럿 살고 있어서

사탕만 보면 먼저 깨물어주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다투었대

그러면 사탕은 혜속에 쏙 들어가슴고

혜는 사탕을 꼭 끼껴안아 숨겨 주었대

이빨은 어서 사탕 내놓으라고 딱딱거리고

혜는 사탕어다? 이

그렇게 한창 다투다가... 하고

사탕이 작이나 금금해서 혜가

살면서 제몸을 포셔 들여다 보았대

그마... 그마, 사탕은 벌써 노아 시라겨. 더러



채송화

시: 김윤진

해바라기는 커서
 멀리서도 보이지만
 커작아도 채송화
 얼마나 예쁜데요
 부용꽃은 꽃이 커서
 눈에 금방 띄이지만
 작아도 채송화
 얼마나 고운데요



가을

나무와 단풍잎도
나뭇잎이 그런가보다
헤어지는 계절 얼굴이 울긋불긋

떠나는 건
슬프다
금방이라도
잊을 것 같다.



레고

레고 가게 왔는데
하나도 안 즐겁다

아빠는 신난 거 같은데
나는 전혀 아니다.

아빠는 쪽둘러보라는데
나는 피곤하다.

아빠는 하나만 골라 보라는데
나는 고르기 싫다

아빠는 요즘 제일 걸나가는 게 뭔지 아냐고 묻는데
어는 알고 싶지 않다

아빠가 흥분하는 타지마홀이든 공중공원이든
나는 관심 없다

이제 아빠들자 다 볼 때도 됐다
나는 아빠가 예고서러 갈때마다 같이가기 싫다

아빠는 레고에 미쳤다
나는 아빠가 빨리정신을 차려야만 좋겠다



비 올랑갑다.

아이구 팔다리 허리 고개 어깨야.

내일 비 올랑갑다.

하이고 날씨가 왜 이리 푹푹 쪼인다냐.

내일 비 올랑갑다.

개미들이 왜 저 난리다냐.

내일 비 올랑갑다.

아침노을이 붉게 났다.

달무리가 났다.

앞산 참나무 잎이 하얗게 뒤집어진다.

내일 비 올랑갑다.



달 리

불빛 하나 없다.
다 잔다.
물결도 없이
달이 혼자
강을 건너
지붕 위를 지나
뒷산으로 넘어간다.



아침에

아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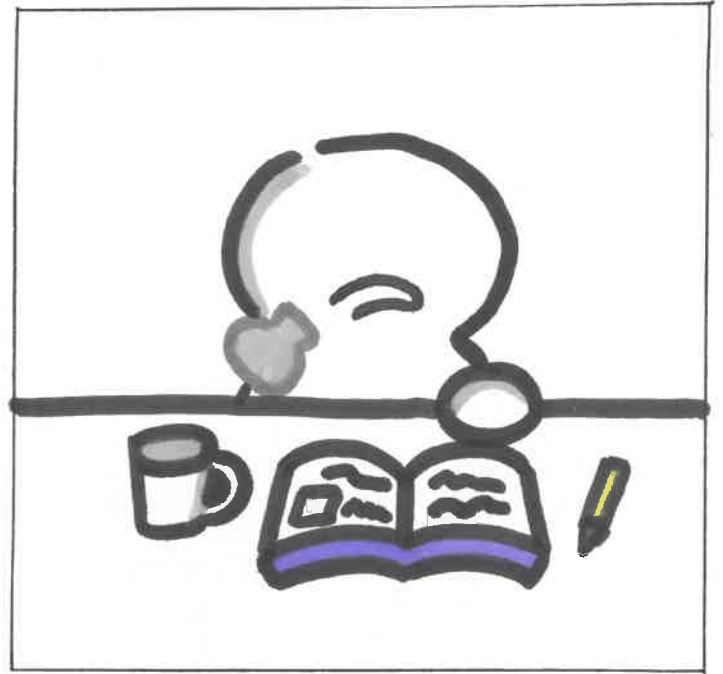
안익준

알람소리에

깨어나

숙제를 한다.

힘들다.



다른 친구들은 아침 먹고 있을 시간에 나는 아침밥 대신 숙제를 먹고있다.

다른 친구들은 아침밥을 먹을수록 배부르지만

나는 아침밥 대신 숙제를 먹어서 그런지

더더욱 배고프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

|"아빠 때문에 정말 못살겠다!"

이런! 문제집 한 귀퉁이에 써놓은 말이다.

나도 모르게 아주 또박또박. 나는 놀라서
얼른 글씨를 지웠다. 아무래도 공부하는. 다들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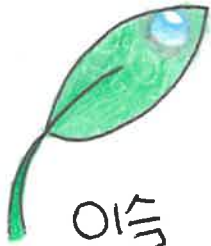
문제집을 펴 놓은 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자꾸우리아

빠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다.

아빠는 엄마만 사랑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사랑이란 게 뭘까?"

아니 결혼이란 게 뭘까?



이슬

9

이슬이 밤마다 내려와 풀밭에서
자고 가지요

이슬이 오르면 해가 안 떠 늦잠이 들어요

이슬이 깎아 보아 바람은 조심조심 부
새들은 소리 없이 날지요 소리 없이 날지요

9

메뚜기

벼논의 메뚜기
벼메뚜기,

노르노르 익어가는
벼상 이삭처럼
메뚜기도 노랗게
익고있네요.



국군의 날

걸음을 딱딱 맞추어

적적 발을 맞추어

어깨를 꼳꼳하게

어귀를 추추퍼고

앞으로 앞으로

코가 감지러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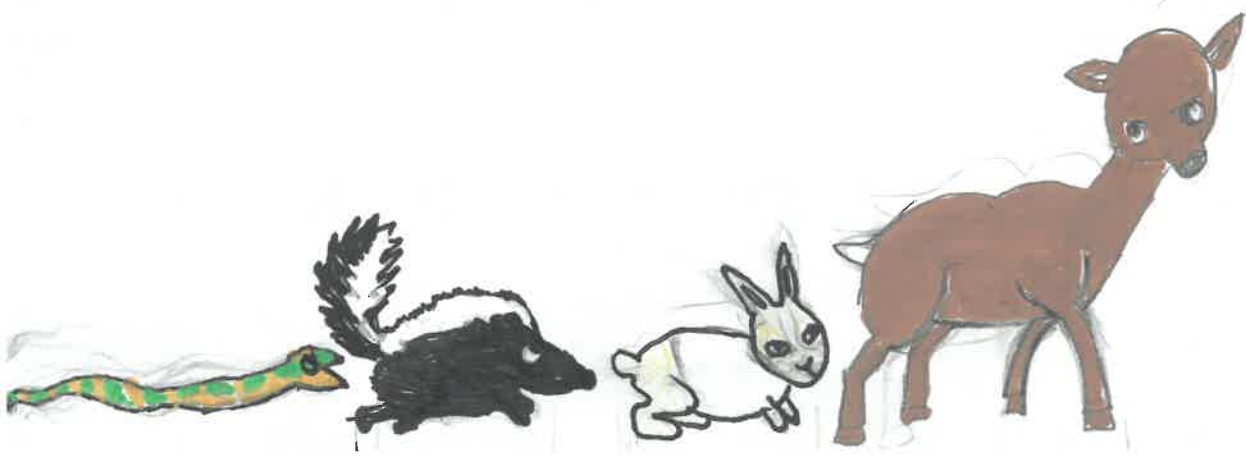
귀가 감지러워도

새채기가 나도

방귀가 나도

꾸꾸 참고

행군을 행군을





찜질방



권서아

엄마 아바바 따라 간
"찜질방"

내 머릿속 찜질방은

지옥의 방 같죠.

찜질방에 들어가면

내 몸에 불이 화르르
발을 딛는 순간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
내 입은 아이스크림
반겨주죠.

내 기억 속 찜질방은 천사의 방



도도따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적으로 통하고

하늘에 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속에서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 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웃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흰이 우는 것이냐

리조 높은 것은

밤은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것은

나를 짓는 것일 거다